

## 팀 켈러 목사의 죽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의 교훈

성경말씀: 히9:27

지난 며칠 팀 켈러 목사의 죽음이 내 머리속을 떠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 그런데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의 죽음을 접하면서 자꾸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마지막 암 투쟁 모습이 떠오른다.

팀 켈러, (\*), 1950-2023, 72세,

위키 백과, 팀 켈러(Timothy J. Keller, 1950년 9월 23일~2023년 5월 19일)는 미국의 목사, 신학자 및 기독교 변증가이자 뉴욕시 리디머 장로 교회(Redeemer Presbyterian Church)의 설립자이다. 그는 1989년 아내 캐씨와 3명의 아이들과 함께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하여 20년 동안 다양한 젊은 직장인들을 지도하며 대형 교회로 성장시켰다. 그는 여러 도시에 교회들을 개척하고 도시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나 자료들을 출판하는 '리디머시티투시티'(Redeemer City to City)의 이사장도 맡았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48개 도시에서 250개 교회를 개척했다. 존 파이퍼와 더불어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 하나로 인정받는다.

켈러는 1950년에 펜실베이니아주 앨런타운에서 태어났다. 1972년에 버크넬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1975년에는 고든 콘웰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M.Div.)를 받았다. 이때 부인인 캐시 크리스티와 만나 결혼하였다. 1981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D.Min.)를 받았다. 그는 박사학위를 받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기도 하였다.

팀 켈러는 2002년에 갑상선암에 걸렸는데, 18년 뒤인 2020년 6월에 최장암 판정을 받아 투병하던 도중 2023년 5월 19일 72세의 나이로 호스피스에서 사망했다.

나는 12년 전, 팀 켈러의 책 <결혼의 의미>(결혼을 말하다)를 통해 그를 만났다. 결혼 시리즈 머리를 완전히 민 모습으로 깨끗하고 독특한 목소리로 설교하는 그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는 젊은이들 특히 뉴욕의 젊은이들을 위해 많은 선한 일을 하였다.

그가 자기 가족과 함께 세운 리디머 교회는 현재 5,000명의 성도들이 참여한다.

뉴욕이라는 대도시, 가장 세속적인 도시에서 이런 일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리더십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나는 그가 지향하는 신학적 노선(장로교 칼빈주의), 도시 교회 성장 및 부흥 방법, 음악 등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암 투병을 하면서 그가 느끼고 고백한 것, 즉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간으로 투명하게 선 그의 모습에 전적으로 동의하기에 오늘 이 설교를 한다.

다시 이야기한다. 유명한 목사의 죽음을 보며 그 일이 내게도 닥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죽음을 잘 대비하는 것,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마도 그래서 며칠 동안 죽음에 대한 생각이 나를 떠나지 않은 것 같다.

오늘은 그의 죽음을 통해 그의 말년에 일어났던 일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의 인생의 최고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등을 살펴보고 한다.

### 우리는 정말로 부활을 믿는가?

2021년 4월 부활전 기간에 켈러는 암투병과 팬데믹을 겪으며 자신이 변화한 체험을 털어놓았다.

특히 그는 암 투병 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해졌던 과정을 고백했다.

사실 팀 켈러 목사는 2020년 4월 최장암 선고를 받기 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저서 “두려움의 시대에 필요한 희망(Hope in Times of Fear): 부활과 부활절의 의미”의 원고를 집필하던 중, 기독교의 부활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6월, 당시 70세이던 그는 최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 켈러 목사는 인터뷰에서 “당신이 아주 빨리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은 기본적으로 죽음을 부정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며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치면, ‘내가 이 일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그 부활도 알게 될 것이라고 믿는가?’ 반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래 이 책은 2016년 출간된 “감춰진 크리스마스(Hidden Christmas)”의 설명서로 기획되었으나 코로나 팬데믹과 자신의 암 선고 이후에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켈러는 회상했다. 이후에 그는 SNS를 통해 “나는 지금 부활에 관한 책을 쓰고 있으며 내가 죽을 것이라고 반쯤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나는 돌아가서 깨달았다. 내가 부활에 대해서도 반밖에 믿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단지 지식적으로 많이 믿는 차원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믿는 것 말이다”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지적으로는나 정신적으로나 부활에 대한 더 크고 깊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켈러 목사는 이후 몇 달간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거를 들여다보았고, “지적 및 정서적 작업”을 병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오로지 기도와 성경에 몰두하며 성령님께 자신의 마음을 현실로 만들어 달라고 간청했다고 고백했다.

켈러 목사는 “추상적인 믿음을 내 마음속으로 가져가고, 경험적으로 알고, 확신을 키우고, 효과를 얻기까지 몇 달이 걸렸다”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날마다 그 진리에 빠져들고, 성령님께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 현실이 되도록 구한다면,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죽음 앞에 선 유명한 목사의 진솔한 고백, 나는 이런 목사, 인간을 존경한다.

또한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거부하며 살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과 영적 현실을 직시할 때, 이 땅에서의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고 부활이 가져다주는 ‘변화시키는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죽음 앞에 섰을 때 지상의 것들은 덜 중요해진다.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실재에 대한 진정한 영적 체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며 “그래야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과 은혜의 빛으로 점점 이상하리만치 어두워진다”고 전했다.

켈러는 이와 같은 경험에 대해 “직장이나 친구,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작은 죽음 속에서 이것을 연습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인 믿음을 가져다가 당신의 마음에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그분은 당신의 위로가 되신다.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을 당신의 구원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게 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책 ‘두려움의 시대에 필요한 희망’ 책에서도 “부활은 하나님이 세상을 전혀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의미한다. 또한 부활은 그 의미 이상의 희망 즉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고, 고통을 통해 치유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며 “부활은 이러한 회복(renewal)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장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되고 부당한 일에 맞서 지금 일해야 한다는 외침”이라고 강조했다.

팀 켈러의 고백 “부활 절반밖에 믿지 않았다”

###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1년 반 뒤 2023년 1월에 그는 암 투병 중 기도 생활과 시편이 어떻게 자신을 지탱해 주었는지 소개했다. 2023년 72세인 켈러 목사는 1월 6일 기독교 유튜브 채널 ‘프리미어 언빌리버블?’(Premier Unbelievable?)에 화상 출연해 ‘암을 통한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제목으로 인터뷰했다. 켈러 목사는 자신과 그의 아내 캐시가 암 진단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기도 생활이 성장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켈러 목사는 ““과장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저와 내내는 제가 암을 겪기 전의 기도 생활과 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오 아침 일찍 주의 긍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라는 시편 90편 14절 말씀을 실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기도에 관해서는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다른 차원에 이르자 나의 선함이나 기도 생활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진솔한 고백,

켈러 목사는 “당신이 정말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 당신의 시간과 하나님, 배우자를 보는 방식이 바뀐다”라며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실제로 깨달을 때 모든 것이 바뀐다”라고 전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암 투병이 삶의 속도를 늦춰 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좋은 일”이었다고 했다. 켈러 목사는 “실제로 내 모습은 매우 왕성했다. 너무 오랫동안 지나치게 활발했다. (암을 통해) 나는 내 인생의 대부분이 머물러야 했던 곳에 더 가까워졌다”며 “아들들과 관계가 좋다는 점에서 매우 축복을 받았다. 아내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다. 켈러 목사는 암 진단으로 인한 불안을 해결하는 데, 죄책감부터 우울증까지 모든 문제를 다룬 시편이 위안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께 가르쳐 줄만한 것은 시편만 한 것이 없다”며 “내가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은 시편을 계속 읽고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역시 진솔한 고백

### 팀 켈러 목사가 마지막까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

2023년 5월 19일 오전, 팀 켈러 목사님은 그 마지막 순간을 아내인 케시 켈러 사모님과 함께 했으며 그의 마지막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데 아쉬움이 없구나. 전혀 없어.”

### 성경의 죽음

죽는다(die, 707), 죽음(death, 372), 이 외에도 죽음을 뜻하는 다른 단어들, 적어도 2,000번 이상, 대단히 중요한 토픽, die(창2:17), death(계21:4, 8), 성경은 죽음의 경고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난다. 인생의 끝이 중요하다. 죽음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영원히 갈린다.

### 죽음에 대한 생각

#### 1. 죽음은 누구에게나 닥친다(히9:27).

인간은 사고가 나서 죽거나 병들어 죽는 등 다 죽게 되어 있다. 죽음은 아이, 노인, 부자, 가난한 자, 권력 있는 자, 힘없는 자, 성자, 죄인을 막론하고 예외 없이,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찾아온다.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바울, 베드로 등 다 죽었다. 우리 모두 죽음을 잘 대비해야 한다.

#### 2. 삶은 곧 죽음이다.

죽어야 될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죽음은 인간의 삶 속에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삶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죽음은 인간이 체험해야 될 것 가운데 마지막 것으로, 모든 인간이 두려움과 호기심과 불안을 가지고 예외 없이 거쳐야만 하는 것이다.

#### 3. 죽음에 대한 공포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에 대한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참으로 죽음의 불안은 인간 존재의 근원적이며 궁극적이고 가장 강력하고도 위협적이며 고통스러운 불안이다.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죽음이 두려운 것은 인간이 죽음을 능동적으로 맞이하는 사건이 아니라 보다 큰 세력을 지닌 타력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다가가야 하는 사건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죽기를 원해서 죽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죽기 싫은데 죽음은 점점 다가와서 모든 관계를 끊고, 모든 소유로부터 단절하도록 인간을 끌고 가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 왜 죽음이 오는가?

창2:16-17, 죽음은 죄 때문에 온다. 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내가 하나님 위에 있다는 생각, 즉 교만에서 죄가 나온다.

결국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서 먹었고 죽음이 찾아왔다.

1. 1차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 영적으로 죽는 일,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2. 그리고 결국 육신의 죽음이 왔다. 육신의 죽음: 영과 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것

인간에게는 두 가지 죽음이 있다. 이 두 가지 죽음의 문제(고통)를 극복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과제

1. 첫째 사망 즉 몸의 죽음은 이 세상 누구나 다 당한다. 예외가 없다(히9:27).

2. 둘째 사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추방되어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불타는 불 호수에서 사는 것(계20:14), 히9:27, 그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3. 둘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면 첫째 사망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심판: 정죄의 심판, 영생의 심판

기독교는 사람이 죽는 이유를 말해 주는 유일한 체계: 죄가 문제이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떤 철학도, 가르침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해답도 당연히 기독교에만 있다.

해결책: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사람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죄인, 무슨 일을 해도 100%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고안한 것들이 종교와 철학: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늘로 올라가려는 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죄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된 것에 대한 완벽한 희생 예물

속죄(atonement), 화해

구약성경의 예표: 대신 속죄, 죄 없는 것이 대신 죽어 화해를 이루는 것

과거에는 죄 없는 짐승, 예표와 그림자

드디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묻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 죄를 제거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하나님이 대신속죄를 이루셨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벧전1:3-4,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켈러의 말대로 혹시 우리는 그것을 절반만 믿고 있지는 않은가?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이다.

#### 존 파이퍼와 팀 켈러의 마지막 대화

그가 죽기 2-3일 전에 파이퍼는 켈러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서 병원에서 호스피스 옮겨질 시점

이제 죽음이 그의 코앞에 왔다. 그 역시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파이퍼는 그와의 대화를 요약해서 이렇게 말한다. <팀 켈러 목사와의 마지막 이메일> 2분 동영상

켈러는 젊은 목사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려고 하였다.

눅10:1, 70명의 사역 이후 복귀, 마귀들이 그들에게 굴복함, 매우 기뻐함(17)

예수님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눅10:20).

죽음 앞에 선 팀 켈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 말씀, 이 구절은 또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위로를 준 말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이것으로 인해 기뻐해야

한다.

열심을 다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목사 같으면 교회와 양 떼를

사랑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부흥도 경험하고 성장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 이로 인한 흥분이 있어야 한다. 일, 교회,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최대 기쁨이 되어야 한다.